WHO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글로벌 건강보장 지표**(UHC: Universal Health Coverage)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1. **필수 건강서비스 보장 지표**
   * 예방, 치료, 재활, 완화 등 국민이 필요한 필수 건강서비스를 얼마나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예방접종, 산모·신생아 관리,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치료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2. **재정적 보호 지표**
   *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측정합니다.
   * 대표적으로 ‘가계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 또는 25%를 초과하는 인구 비율’을 사용합니다.

## 한국의 성과와 글로벌 평균 비교

| 항목 | WHO/세계은행 글로벌 평균 | 한국의 성과 | 평가 및 시사점 |
| --- | --- | --- | --- |
| 필수 건강서비스 보장 | 66점(전 세계 평균) | **85.7점** | 매우 높은 수준. 동아시아(77점), 유럽(77점)보다 높음. |
| 재정적 보호(OOP 10%) | 국가별로 상이 | **상대적으로 미흡** | 가계 의료비 부담(소득 10% 초과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음. |
| 재정적 보호(OOP 25%) | 국가별로 상이 | 스위스, 포르투갈과 유사한 낮은 수준 | 소득 25% 초과 비율은 일부 유럽 국가와 유사하나 여전히 개선 필요. |

## 분석 및 해석

* **필수 건강서비스 보장**:  
  한국은 예방,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필수 건강서비스 접근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건강보험 도입과 전국민 가입, 의료 접근성 향상 정책의 효과로 해석됩니다.
* **재정적 보호**:  
  반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OOP: Out-of-pocket payment)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은 의료비가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이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한 실질적 가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 **국제 비교의 한계**:  
  WHO/세계은행 지표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통계자료, 비급여 항목의 범위 등이 달라 직접적인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지표의 취지를 살리되, 한국 실정에 맞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요약**  
한국은 WHO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글로벌 건강보장 지표 중 **필수 건강서비스 보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보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진료비 관리 등 추가적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